

원대 관우숭배와 관우 형상의 변화

차미경* · 유연미**

目 录

1. 들어가면서
2. 원대 관우숭배와 관우극 창작
3. 관우극에 보이는 관우형상 변화와 의미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중국은 역사상 다양한 인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다. 그 중 관우(關羽) 숭배가 가장 대표적이다. 관우 숭배는 처음에는 관우의 죽음과 관련된 전설에서 비롯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¹⁾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우가 곳곳에서 영험함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설이 널리 퍼지게 되자 관우는 두려움의 대상에서 점차 숭배의 대상으로 변해갔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관우를 위해 제를 올리거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짓는 일이 많아졌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공인을 받아 하나의 숭배

*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部 教授

**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部 석사

1) 관우는 서기 200년 전후, 즉 후한말기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전란기에 유비, 장비 등과 의형제를 맺고 활약했던 무장이다. 삼국 시대 蜀나라 河東 解縣 사람으로 字는 雲長이며, 諡號는 壯穆侯이며, 수염이 아름다워 美髯公이라고도 불렸다. 동한 建安24년에 형주를 잃고 맥성으로 도주하다가 임지에서 손권의 부장에서 잡혀 처형당했다. 죽은 뒤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되어 ‘關聖帝君’이나 ‘關帝聖君’이라고도 불린다.

문화로 자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관우숭배는 대략 수당시대에 시작되어 송원의 형성시기를 거쳐 명청시대, 특히 청대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한다.²⁾ 이런 관우 숭배로 인간이었던 관우는 신의 전당으로 들어가 중국을 대표하는 민간신앙인 관우신앙으로 발전하여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관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앙을 받아 신의 경지에 오른 것일까? 이런 지금의 멋진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상으로 완성되었을까?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우숭배의 형성시기에 해당하는 원대를 중심으로 원대의 관우숭배 현상이 당시 문학의 주류 장르였던 잡극 관우극의 창작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창작된 관우극 중 관우형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원대 현존하는 관우극 중 관우의 형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관대왕독부단도회(關大王獨赴單刀會)」(이하 「단도회」), 「관장쌍부서촉몽(關張雙赴西蜀夢)」(이하 「서촉몽」)과 「관운장대과치우(關雲長大破蚩尤)」(이하 「대과치우」) 세 작품을 중심으로 관우 형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 이를 통해 원대 관우극이 가지고 있는 희곡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송원시기의 왕조는 관우에게 수차례 봉호를 하사하여 그를 추대하였으며, 그 지위는 '侯', '公', '王'을 거쳐 '大帝'로까지 격상하였다. 명대를 지나 청대가 되면서 관우숭배 현상은 더욱 본격화되어 건륭연간에는 이미 관우의 武廟가 공자의 文廟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3) 본 연구는 『孤本元明雜劇』관본인 「單刀會」, 「大破蚩尤」와 『元曲選外編』관본인 「西蜀夢」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원대 관우극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杜鵬의 「雜劇關公戲文本的藝術形式研究」(『中北大學學報』第2期, 2015), 回達強과 金強的 「元雜劇《關雲長大破蚩尤》與關羽戰神、雨神崇拜的發軔」(『河北學刊』第5期, 2008), 賈喻翔의 「從《單刀會》看關羽的人物形象」(『青年文學家』第15期, 2014), 李玲瓏의 「元代關羽崇拜與元雜劇中的關羽形象」(『青海師範大學民族師範學院學報』第1期, 2006), 李新과 韓旭의 「淺論關漢卿雜劇中的“關公劇”」(『河北科技師範學院學報』第1期, 2012) 등이 있으나 원대 관우숭배와 잡극 관우극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2. 원대 관우숭배와 관우극 창작

관우숭배는 관우의 죽음과 관련된 전설에서 시작되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불행하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를 ‘여귀(厲鬼)’라고 하였다. 목이 잘려 죽은 관우의 여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하여 민간에서는 이러한 관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관우가 조조의 꿈에 나타나 조조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설이나, 관우가 손권과의 술자리에 있던 여몽의 몸에 들어가 여몽이 피를 쏟으며 죽게 되었다는 설 등은 관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관우가 참수 당했던 형주(荊州) 지역에서는 관우를 두려워하여 그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음사(淫祀)’라고 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음사뿐만 아니라 관우를 위한 사묘를 건립하여 관우를 달래주었다. 이것이 가장 이른 관우 숭배의 형태이다.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쳐 수대에 이르러 관우가 죽음을 당한 호북성(湖北省) 당양현(當陽縣) 일대에서 관우가 영험함을 드러내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일대는 관우가 생전에 가장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으로, 실제로 양말에 후경(侯景, 503~552)의 난이 있었는데, 이때 육법화(陸法和)가 진압에 나서 후경의 부장인 임약(任約)의 군대를 대파하였다. 당시 강릉(江陵) 지역의 많은 신들이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때 관우 신령도 그를 도왔다고 한다.⁴⁾ 이처럼 수대는 관우가 두려움의 대상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변모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⁵⁾.

그러나 위진남북조에서 수대까지 관우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당대에 와서 관우숭배는 불교와의 결합을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킨다.

4)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서울: 선학사, 2004, 11쪽.

5) 劉福燕, 「關公傳說視域下的關公信仰探究」,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4期, 2012, 71쪽. 이 옥천산에서 관우가 영험함을 드러냈다는 전설이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설이며, 이것이 학술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이른 관우 顯靈의 전설이다. 또한 이 옥천산 현령에 근거하여 중국학자 대부분이 수대에 관우 숭배의 기원을 둔다.

그것은 관우의 옥천산 현령 전설이 천태종(天台宗)의 창시자인 지의선사(智顛禪師, 538~597)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⁶⁾. 그 내용은 진말 광대(光大) 연간에 지의선사가 옥천산을 방문하자 관우가 현령하여 자신의 사묘를 폐하고 그곳을 승방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신력을 발휘해 가람(伽藍)을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관우숭배가 불교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송대에 이르러 관우는 비로소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치우(蚩尤)와 관련된 전설 때문이다. 치우의 농간으로 해주(解州)지역 염지에 가뭄이 들자 고향이 해주인 관우로 하여금 치우를 물리치도록 했고, 마침내 관우가 치우를 격파하니 염지가 해갈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공으로 사묘를 지어주고 봉호를 내려주었다.

또한 문치정부였던 송대는 줄곧 북방 소수민족의 침략을 당하여 송대 정부는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관우에게 끊임없이 봉호를 하사하였다. 나아가 宋의 통치자들은 민중들이 관우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본받아 관우처럼 그들에게 충성해주길 바랐다. 이에 철종(哲宗)은 소성(紹聖) 2년(1095) 5월에 관우를 최초로 ‘현렬왕(顯烈王)’에 봉하였다.

후에 관우는 정부로부터 많은 봉호를 하사 받았다. 도교를 숭상한 휘종(徽宗)이 즉위하면서 관우는 단번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종교적 지위도 점차 끊임없이 올라 휘종 승녕(崇寧) 원년(1102)에 관우는 ‘충혜공(忠惠公)’에 봉해졌고, 승녕 3년(1104)에는 도교적 측면에서 ‘송녕진군(崇寧眞君)’에 봉해져 도교신이 되었다. 대관(大觀) 2년(1108)에 이르러 관우는 ‘무안왕(武安王)’이 되었고, 선화(宣和) 5년(1123)에는 ‘의용무안왕(義勇武安王)’으로 승격했다. 이 짧은 20년의 시간 동안 휘종은 네 차례에 걸쳐 관우를 추봉하여 관우는 ‘후(侯)’로부터 ‘공(公)’, ‘공’으로부터 ‘군(君)’, ‘군’으로부터 ‘왕(王)’이 되기

6) 구은아, 「중국의 關公信仰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2012, 238쪽.

7) 陳光大中, 智顛禪師者至自天臺, 宴坐喬木之下, 夜分忽與神遇, 云: ‘願捨此地爲僧坊, 請師出山, 以觀其用.’ 指期之夕, 萬壑震動, 風號雷競. 前劈巨嶺, 後墜澄澤, 良材叢木, 周匝其上. … 박신영, 「《三國演義》의 關羽형상화가 그 神格화에 끼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81쪽.

에 이르렀다.⁸⁾ 남송시기에도 위우내환은 끊임이 없었다. 이에 고종(高宗) 건염(建炎) 3년(1129)에도 관우를 ‘장무의용무안왕(壯繆義勇武安王)’에, 효종(孝宗) 순희(淳熙) 14년(1187)에는 ‘장무의용무안영제왕(壯繆義勇武安英濟王)’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⁹⁾

이처럼 관우는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인을 받았다. 민간에서도 관우 숭배는 더욱 보편화되어 민중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되었다. 관우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당시 이민족의 압박에 반항하는 민족 절개와 서로 부합되었고, 이로 인해 관우 숭배는 사회에서 널리 뻗어나가기 시작했다.¹⁰⁾

원대 정부의 관우 숭배는 이전 왕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민족 정권인 원 왕조는 한인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우를 이용하였다.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의 막료이며 ‘용하변이(用夏變夷)’¹¹⁾를 주장한 한림원 시독사 학경(郝經)은 순천부 ‘한의용관제묘’ 중건사에서 “영령함과 의리가 천하에 퍼지고, 그 시작이 바로 이곳이다”는 글로 유비의 어짐과 관우의 의리를 칭송하였다. 이에 세조는 지원(至元) 7년에 스승 파극사파(帕克斯巴)의 제의를 받아들여 매년 2월 15일에 “액운을 물리치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사(佛事) 활동 때 호위군사 500명으로 하여금 관공을 모신 가마를 들고 궁내를 돌게 했다.¹²⁾ 황제가 참가한 불사 중 불교의 보살 외에 인간에서 신이 된 관우

8) 鄭土有, 『關公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1995, 89쪽,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齊魯師範學院學報』第5期, 2012, 152쪽.

9) 구은아, 「중국의 관공신앙(關公信仰) 고찰」, 240쪽,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152쪽.

10) 郭素媛, 「關羽崇拜與關羽形象的演變及詮釋」, 152쪽.

11) 夏나라로 오랑캐를 변화시킨다는 뜻으로, 몽골족이었던 원대 통치자들의 지배 개념이었다. 지배계급인 몽골족들은 혈통을 중시하여 봉건적 신분제도의 확립을 피하였으며 통치에 있어서도 계급 차별정책을 실시하여 수많은 이민족을 억압하였다. 특히 각 민족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차별정책을 펼쳤는데, 몽골인의 지위가 가장 높았으며, 색목인이 그 다음이고 한인과 남인의 지위가 가장 낮았다.

12) 至元七年, 元朝廷採用帝師八思巴的建議, 從樞密院調撥士兵五百, 抬着三百六十壇的伽藍神關羽的轎子, 圍繞皇城一周, 時謂“遊皇城”. 劉福燕, 「關公傳說視域下的關公信仰探究」, 73쪽.

가 유일하게 최고의 신으로 모셔졌다. 이처럼 원대는 국가 차원에서 관우를 모시고 숭배했고, 제8대 황제인 문종(文宗) 때에는 송대에 내려졌던 관우의 마지막 봉호인 ‘장무의용무안영제왕’에 두 글자를 더하여 ‘장무의용현령무안영제왕(壯繆義勇顯靈武安英濟王)’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문종은 사신을 관묘에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고 전해진다.¹³⁾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관우숭배로 전국적으로 관묘가 세워졌고, 각지의 관묘에서는 5월 13일과 9월 13일에 묘회를 열었는데, 고위관리부터 일반백성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듯 원대의 통치자들은 한족을 원활하게 통치하고 교화하기 위해 송대의 호국신이었던 관우를 적극 수용했고, 이것은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원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우를 숭배했다. 원 정부는 ‘용하변이’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동화시키려 했지만 한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민족정체성을 갖으려고 노력하였다. 한인들은 이런 이민족 통치 아래에서 받은 차별과 열등감을 당시 유행하던 문학 장르인 잡극을 통해 표출하였다. 그들의 충의의 화신인 관우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마음껏 표출했다. 그래서 전대와는 아주 다른 관우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관공희가 대량 창작되었다.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원대 관우극은 「서촉몽」, 「단도회」, 「제갈량박망소둔(諸葛亮博望燒屯)」, 「호뢰관삼전려포(虎牢關三戰呂布)」, 「관운장천리독행(關雲長千里獨行)」, 「관운장단도벽사구(關雲長單刀劈四寇)」, 「수정후노참관평(壽亭侯怒斬關平)」, 「대과치우」, 「유관장도원삼결의(劉關張桃園三結義)」, 「관운장의용사금(關雲長義勇辭金)」, 「경동지공순태평연(慶冬至共享太平宴)」 등 11종이 있다.¹⁴⁾ 이는 관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잡극의 창작은 민간에서 관우에 대한 관심이며 동시에 민중들이 관우를 숭배하는 하나

13) 남덕현, 「關羽 문화현상 고찰」, 『CHINA연구』 제10집, 2011, 286쪽.

14) 현존하는 원 잡극 중 삼국고사를 다룬 잡극의 비중이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것은 주목해볼만한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중 4분의 1이 관우가 주인공인 잡극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杜鵑, 「雜劇關公戲文本的藝術形式研究」, 『中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期, 2015, 102쪽.

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대에는 국가 차원의 숭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유행하였던 잡극 작품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우를 숭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거행하는 의식이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묘회 모두 고관대작부터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우를 숭배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원대부터 보이기 시작한 현상으로, 원대는 관우가 민족과 계층의 한계를 넘어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 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대는 관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잡극의 흥성으로 관우극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학 장르를 등장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3. 관우극에 보이는 관우형상의 변화와 의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대의 관우숭배 현상은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곳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관우에 대한 관심과 숭배는 자연스럽게 관우극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대의 관우극은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존하는 11편의 원대 관우극 중 관우의 형상이 다양하게 그려지는 「단도회」, 「서촉몽」, 「대파치우」 세 작품을 중심으로 관우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그러한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단도회」

관한경의 작품인 「단도회」는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고사를 바탕으로 관우가 칼 한 자루만을 가지고 연회에 참석하여 노숙(魯肅)이 꾸며놓은 함정에서 멋지게 빠져나온다는 내용이다. 「단도회」는 현존하는 관우극 중에서 인간 관우의 인물형상을 가장 뾰족하게 묘사한 작품 중 하나로, 관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의 용맹스런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먼저 이 작품에서 관우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 대사] 관운장이 싸움터에 나가서 말에 앉아 손에 칼을 쥐고 안장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만 명의 사내로도 능히 당해 낼 수 없는 용맹을 가지고 있소. [창] 【금잔아】 그가 싸움터에 나가 세 가닥 멋진 수염 나 부끼고, 위풍당당하게 1장이나 되는 큰 호랑이 같은 몸집을 흔들며 움직이면, 마치 六丁神의 무리가 한 명의 살아있는 神道를 받들고 있는 것과 같지. 적군이 만약 본다면 깜짝 놀라 七魄이 흩어지고 五魂이 사라진다네. [대사] 당신이 만약 그와 싸운다면. [창] 당신은 몇 겹의 갑옷을 걸쳐야 하고, 더하여 몇 겹의 도포를 입어야 할 것이라네. 백만 군이 있어도 질풍처럼 내달리는 그의 천리추풍마를 막을 수 없소. 당신에게 천명의 장수가 있다 해도 번쩍거리는 언월삼정도를 피할 수는 없지. ([未云] 想關雲長但上陣處，憑着他坐下馬·手中刀·鞍上將，有萬夫不當之勇。 [唱] 【金盞兒】 他上陣處赤力力三絡美髯飄，雄赳赳一丈虎軀搖，恰便似六丁神簇捧定一箇活神道。那敵軍若是見了，諛的他七魄散·五魂消。 [云] 你若和他廝殺呵。 [唱] 你則索多披上幾副甲，臙穿上幾層袍。便有百萬軍，當不住他不刺刺千里追風騎。你便有千員將，閃不過明明偃月三停刀。)¹⁵⁾

[창] 그는 붉은 봉황의 눈 부릅뜨고 장수를 잡던 손 가볍게 풀겠지. 그와 잠미를 잔뜩 찌푸리면 오운산의 열화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네. 그가 만약 아름다운 자태를 으그러뜨린다면 당신은 뭘 준비를 해야 하고, 그가 만약 보검을 칼집에서 뽑는다면 당신은 머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오. 당신은 헛되이 당신의 81개의 군사요충지만 잃을 것이라네! ([唱] 他圓睜開丹鳳眸，輕舒出捉將手。他將那臥蠶眉緊皺，五雲山烈火難收。他若是玉山低起，你安排着走。他若是寶劍離匣，準備着頭。枉送了你那八十一座軍州!)¹⁶⁾

[황문 대사] 이 문을 빠져나왔구나. 보아하니 관공의 영웅다운 모습은

15) 『孤本元明雜劇』第一冊，「關大王獨赴單刀會」，第1折

16) 「關大王獨赴單刀會」，第2折

신선과 같구나. 노자경, 나는 당신이 걱정되는구려! 나 황문이 특별히 관공을 청하러 왔는데, 그는 수염의 길이가 1척 8촌이요, 얼굴은 대추처럼 붉고, 청룡언월도는 81근이나 나가네. 목에 한번만 휘둘러도 어디서 황문을 찾나? 오면 잔치음식을 먹고, 오지 않으면 두부주 3잔을 먹지. [퇴장] ([黃文云] 我出的這門來. 看了關公英雄一像箇神道. 魯子敬, 我替你愁里! 小將是黃文, 特來請關公. 髯長一尺八, 面如掙棗紅. 青龍偃月刀, 九九八十斤. 脖子裏着一下, 那里尋黃文? 來便喫筵席, 不來豆腐酒喫三鍾. [下])¹⁷⁾

위의 대사와 노래는 각각 교공(喬公), 사마휘(司馬徽), 황문이 하는 것으로 제3자의 입을 통해 관우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호랑이 같은 거구와 멋진 세 가닥 수염, 봉황의 눈과 누에 같은 눈썹, 붉은 얼굴 등 직접적이고 생생한 묘사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관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의 노래에서는 관우의 불같은 성격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말 창] 술과 고기를 준비했다는 말은 하지도 마시오. 그는 화가 나면 목전에서 선혈이 흘러야 한다네. 당신은 한의 구좌주가 되고, 나는 술자리에서 취해서, [대사] 대부, 당신과 나는 [창]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온전히 시신도 못 건질 것이요. ([末唱] 你便休題安排着酒肉, 他怒時節目前見鮮血交流. 你爲漢上九座州, 我爲筵前一醉酒, [云] 大夫, 你和貧道, [唱] 啣兩箇都落不的完全屍首.)¹⁸⁾

[창] 【안아라】 당신의 그 문드러지지 않은 세 치 혀가 나의 무정한 삼척검을 건드려 노하게 하네. 이 검은 배고플 때 상장군의 머리를 먹고, 목마를 때는 원수의 피를 마시지. 【득승령】 한 마리 용이 칼집 속에 집거하고, 호랑이가 자리에 앉아 가죽을 벗기네. 오늘 옛 친구를 겨우 만났는데 우리 형제를 서로 떨어져 헤어지게 하지 말지어다. 노자경은 들어라. 내심 겁먹지 말라. 정말이지 바르지 못하구나. 나는 술에 취해야겠다. ([唱] 【鴈兒落】 則爲你三寸不爛舌, 惱犯我三尺無情鐵. 這劍饑滄上將頭, 渴飲讐人血. 【得勝令】 則是條龍向鞘中蟄, 虎在座間瘦. 今日故友每

17) 「關大王獨赴單刀會」, 第3折

18) 「關大王獨赴單刀會」, 第2折

纔相見, 休着俺弟兄每相間別. 魯子敬聽者, 你心內休喬怯, 暢好是隨邪,
吾當酒醉也.)¹⁹⁾

[창] 【교정과】 어쩌서 소란스럽게 군병들이 늘어서있는가. 나를 가로막
지 말라. [대사] 나를 가로막는 자는, 하하! [창] 그는 나의 칼 아래 죽으
리라, 눈앞에 피를 흘리며. 장의의 입과 괴통의 혀를 가졌다 해도 몸을
재빨리 돌려 숨지 말라. 정성껏 나를 배까지 배웅하라. 나는 당신과 천천
히 헤어지리라. ([창] 【攪箏琶】 却怎生鬧炒炒軍兵列, 休把我當攔者,
[云] 當着我的, 呵呵! [唱] 我着他劍下身亡, 目前流血! 便有那張儀口,
剗通舌, 休那里躲閃藏遮. 好生的送我到船上者, 我和你慢慢的相別.)²⁰⁾

먼저 사마휘의 노래에서는 관우의 성격을 ‘화가 나면 목전에서 피를 보아
야 직성이 풀린다’는 표현을 사용해 묘사하고 있다. 한 줄도 채 되지 않는 짧
은 표현으로 관우의 사나운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
는 관우의 노래에서는 자신을 노하게 하면 가차 없이 검을 휘둘러 수급을 베
고 피를 마신다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라 노래한다. 세 곡의 노래에서 모두 ‘血’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줌과 동시에 관우의 불같은 성격을 생생히 묘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우의 용맹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말 창] 【작답지】 그는 문추를 죽여 거친 기세를 과시했고, 안량을 죽
여 영웅호걸을 드러냈지. 그는 저 백만 군대 속으로 가 그 수급을 가볍게
베었지. ([末唱] 【鶴踏枝】 他誅文醜逞粗躁, 刺顏良顯英豪. 他去那百萬
軍中, 他將那首級輕梟.)²¹⁾

[창] 【미성】 난 칼끝이 닿아 당신이 손을 다칠까 두렵고, 나뭇잎이 내
머리를 부술까 경계하오. 관운장은 두 친구를 찾아 천리를 홀로 가며, 필

19) 「關大王獨赴單刀會」, 第4折

20) 「關大王獨赴單刀會」, 第4折

21) 「關大王獨赴單刀會」, 第1折

마단도로 九州를 제압했지. 사람은 파산의 고개를 넘나드는 범과 같고, 말은 강을 뛰어넘는 混海獸 같았다네. 가벼이 용천검을 들어 차주를 죽이고, 노하여 곤오검을 끌어 당겨 문추를 죽였지. 휘장 아래 안량은 그의 검에 머리를 바쳤고, 채양이라는 영웅의 머리를 즉시 취하였지. 이것은 시비를 피하려고 응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그는 살인하는 운장이라고. [대사] 안녕히 계시길, [창] 내가 더 걱정되는 건 그가 손을 쓰지 못할까 봐라네! [말 퇴장] ([창] 【尾聲】 我則怕刀尖兒觸抹着輕犖了你手, 樹葉兒隄防打破我頭. 關雲長千里獨行覓二友, 匹馬單刀鎮九州. 人似巴山越嶺彪. 馬跨翻江混海獸. 輕舉龍泉殺車胄, 怒扯昆吾壞文醜. 麾蓋下顏良劍標了首, 蔡陽英雄立取頭. 這一箇躲是非的先生決應了口, 那一箇殺人的雲長, [云] 稽首. [唱] 我更怕他下不的手! [末下])²²⁾

위의 노래는 각각 교공과 사마휘가 부른 것으로, 노숙에게 관우를 초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우를 묘사한 부분이다. 단지 칼 한 자루와 말 한 마리로 백만 군대 속에서 당당히 적군의 수급을 베는 관우의 용맹함은 가히 두려움에 떨 만하다. 노숙의 거듭된 부탁에도 관우를 두려워하여 거절하는 교공과 사마휘의 노래를 통해 관우의 용맹함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관우가 직접 노래하는 자신의 활약상이다.

[정말 창] 【쾌활삼】 내가 조카를 끌고 원소를 찾아간 것을 예로 들면 사소한 것이지. 조카와 형수를 이끌고 유황을 찾아갈 때, 과릉교 위에서 기세당당하게 안장 위에 앉아 있었다네. 【포로아】 나는 또 일찍이 북을 세 번 두드리는 동안 채양을 베어 피를 전쟁터에 뿌렸지. 칼로 정포를 들어 올리고 허창을 빠져나와 조승상을 하마터면 놀라서 죽게 했다네. 단도회에 참석해 문무 양반을 대하는 것은 삼월양양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正唱] 【快活三】 小可如我攜親姪訪冀王, 引阿嫂覓劉皇, 灞陵橋上氣昂昂, 側坐在雕鞍上. 【鮑老兒】 俺也曾搥鼓三鑿斬蔡陽, 血濺在殺場上. 刀挑征袍出許昌, 嶮說殺曹丞相. 向單刀會上, 對兩班文武, 小可如三月襄陽.)²³⁾

22) 「關大王獨赴單刀會」, 第2折

23) 「關大王獨赴單刀會」, 第3折

[정말 창] 【척은등】 그가 위풍당당하게 전장을 배치하고 위엄 있는 병사들을 주둔시켜도 대장군의 지혜는 손무, 오기보다 위에 있다네. 말은 용과 같고, 사람은 금강역사처럼 강하느니라. 내가 강하고 완강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아니나,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주먹을 문지르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창과 갑옷을 배열하고 깃발과 창을 늘어놓고 각자 전장을 나누는 것이지. 나는 삼국의 영웅 한나라 운장, 과연 호기는 3천장이로다. [대사] 아들이, 배 한척을 준비하여라. 주창을 데리고 단도회에 한 번 가야겠다. ([正唱] 【剔銀燈】 折莫他雄赳赳排着戰場, 威凜凜兵屯虎帳, 大將軍智在孫·吳上, 馬如龍, 人似金剛. 不是我十分強, 硬主張, 但題起廝殺呵磨拳擦掌. 排戈甲, 列旗鎗, 各分戰場, 我是三國英雄漢雲長, 端的是豪氣有三千丈. [云] 孩兒, 與我準備下舡隻, 領周倉赴單刀會, 走一遭去.)²⁴⁾

노숙의 초청장을 받아 관우의 아들 관평은 필시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며 관우를 만류한다. 하지만 관우는 관평에게 자신의 업적을 읊어 주며 삼국의 영웅으로서 당연히 단도회에 참석하겠노라 호언장담하고 떠난다. 연회에 참석한 관우는 노숙을 크게 질책하고는 노숙으로 하여금 배웅까지 받으며 멋지게 연회를 빠져나오면서 극은 끝을 맺는다.

「단도회」에서는 인간 관우가 가지고 있는 거친 외모와 불같은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영웅호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장수로서 영토를 둘러싸고 벌이는 신경전과 갈등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축한의 정통성을 노래하는 그의 용맹한 모습은 관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의 영웅으로 자리하게 하였다.

2) 「서촉몽」

「서촉몽」 역시 관한경의 작품으로 죽음을 당해 귀신이 된 관우와 장비가 만나 유비의 꿈에 나타나 그들을 대신해 복수를 청한다는 내용이다. 유비의

24) 「關大王獨赴單刀會」, 第3折

꿈에 나타난다는 기본적인 설정을 통해 관우의 모습을 귀신으로 부각시켜 처량하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다음의 노래에서는 죽어서 귀신이 된 관우와 장비의 생전 모습의 묘사를 통해 삶과 죽음을 대비하여 표현함으로써 서정적인 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금잔야】 관장군이 전투하면 그 누구도 감히 괴롭힐 적이 없었지. 흰 옷과 한 필의 말로 단도회에 가서는 적군을 어린이 장난처럼 취급했고, 흙이나 진흙만도 못하게 여겼다네. 조인의 7만 군을 죽이고, 안량을 베어 위세가 등등했다오. 오늘날 그가 악인에게 양해를 입은 것은 바로 그대의 대범함 때문에 불행에 빠진 것이라네. (【金盞兒】 關將軍但相持，無一個敢欺敵。素衣匹馬單刀會，觀敵軍如兒戲不若土和泥。殺曹仁七萬軍，刺顏良萬萬威。今日被歹人將你算，暢則爲你大膽上落便宜。)25)

【양주】 오나라의 한 용맹한 장수가 우리 서촉의 두 중요한 사람을 꺾어버리다니, 이런 고통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는가? 더 이상 누가 남을 헐 박해서 장군을 사로잡겠는가? 더 이상 누가 땅을 넓혀 영토를 개척하겠는가? 재상이 언제 경상이 된 적이 있었으며 군왕은 누가 군왕이 되었는가? 무명옷 형제의 걱정이라네. 나루터에서 검으로 안량을 베는 것이나 고성에서 검으로 채양을 베는 것이나 석정역에서 원양을 내던지는 것을 다시는 보지 못하네! 어전의 제왕은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앉아서도 생각하며 정남향만을 바라보는데, 재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거늘 조정에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梁州】 單注着東吳國一員驍將，斫折俺西蜀家兩條金梁。這一場苦痛誰承望？再靠誰挾人捉將？再靠誰展土開疆？做宰相幾曾做卿相，做君王那個做君王？布衣間昆仲心腸。再不看官渡口劍刺顏良，古城下刀誅蔡陽，石亭驛手捧袁襄！殿上帝王，行思坐想，正南下望，知禍起自天降。宣到我朝下若問當，着甚話聲揚?)26)

【곤수구】 우리 형님은 봉황의 눈을 가지고 있고 동생인 나는 호랑이와 표범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계에 빠져 죽은 것이 새우나 미꾸라지만도 못하네! 나는 일찍이 독우를 채찍질 하였고, 우리 형님은

25) 『元曲選外編』第一冊，「關張雙赴西蜀夢」，1쪽.

26) 「關張雙赴西蜀夢」，2쪽.

문추를 베고, 차추를 은밀하게 죽이고, 호뢰관에서 여포와 격렬하게 싸웠다네. 우리의 세 치의 기운이 곳곳에 쓰였거늘, 어느 날 불귀의 객이 되어 만사가 끝이로구나. 원대한 포부 보답받기 힘들네! (【滾繡毬】俺哥哥丹鳳之具, 兄弟虎豹頭, 中他人機設, 死的來不如個蝦蟹泥鰍! 我也曾鞭督郵, 俺哥哥誅文醜, 暗殺了車胄, 虎牢關酣戰溫侯. 咱人三寸氣在千般用, 一日無常萬事休, 壯志難酬!)²⁷⁾

유비의 사신과 제갈량이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래는 이들이 관우와 장비의 죽음을 알고 유비에게 알리지 못해 탄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장비가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노래 또한 자신과 관우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결국 죽고 나면 영웅호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아래의 노래에서는 귀신이 된 관우의 형상이 더욱 처량하게 묘사되고 있다.

【영선객】 인간 세상에 산다면 길 위를 걸어 다녀야 하거늘, 어두운 구름 속에서 걷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항상 호위병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오늘은 병사도 많지 않고 따르는 이도 십여 명 뿐이구나. (【迎仙客】 居在人間世, 則合把路上經過. 向陰雲中步行因甚麼? 在常時關西把他圍繞合, 今日小校無多, 一部從十餘箇.)²⁸⁾

【상수재】 평소 궁궐 지키던 관리, 나를 보면 가슴에 공수를 하였는데 오늘은 나를 보고도 왔다갔다만 하니, 귀신이 된 것이 인간보다 자유롭지 못하구나! 궁궐에 서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니, 이제 옛 친구를 볼 수가 없구나. (【倘秀才】 往常真戶尉見咱當胸叉手, 今日見紙判官趨前退後, 元來這做鬼的比陽人不自由! 立在丹墀內, 不由我淚交流, 不見一班兒故友.)²⁹⁾

【곤수구】 그 사이 마침 만추 9월 9일이 되니 바로 군주의 천수로다. 왕

27) 「關張雙赴西蜀夢」, 5쪽.

28) 「關張雙赴西蜀夢」, 3쪽.

29) 「關張雙赴西蜀夢」, 5쪽.

후재상 궁궐에 줄지어 있는 가운데, 소매 걷은 내가 옥 사발에 어주를 받들어 올리면 일제히 만수무강을 외치고, 황제는 군신들에게 장수하라고 회답 하셨다네. 계단 밑엔 항상 궁녀들 가득하였는데, 오늘 처량한 구름 타고 전각 끝에 있으니 슬픈 눈물 끝없이 흐르는구나. (【滾繡球】 那其間正暮秋, 九月九, 正是帝王的天壽. 列丹墀宰相王侯, 攘衣的我奉玉甌進御酒, 一齊山壽, 官裏回言道臣宰千秋. 往常擺滿宮彩女在堦基下, 今日駕一片愁雲在殿角頭, 痛淚交流.)³⁰⁾

귀신이 되어 인간 세계로 내려간 관우의 곁에는 예전만큼의 호위병도 없고 수문장이 예를 갖추지도 않는다. 또한 형님 유비의 생일날이 되었지만 구름 위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자신을 깨닫고 슬픈 눈물을 흘린다. 「서촉몽」에서는 관우를 생전 영웅호걸의 모습과 죽은 뒤 귀신의 모습으로 대비시켜 표현하여 극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관우의 형상을 귀신의 모습으로 더욱 극대화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관우의 슬픔에 더욱 빠져들게 하였다.

3) 「대과치우」

작가를 알 수 없는 「대과치우」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치우가 해주 염지에서 난을 일으켜 백성들이 고통을 받자 관우가 조정의 명으로 치우를 사로잡아 해주가 다시 평안을 되찾았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관우를 인간이나 귀신이 아닌 신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관우와 치우의 신대 신의 싸움에서 관우가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통쾌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관우는 죽어서도 신의 자리에 올라 옥천산의 토지를 관장하고, 7일에 한 번씩 옥황을 만나고 올 정도로 대단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관우의 성격(본성)을 장천사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30) 「關張雙赴西蜀夢」, 5쪽.

[정말 창] 【오야제】 그는 고성에서 그의 형을 찾아갔고, 일찍이 춘추좌씨전을 읽었고, 조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권세와 무력을 떨쳤다네. 금은보화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인을 부러워하지 않았지. 그의 금은보화를 봉하고 인을 걸어두고 벼슬을 그만두는 것이 누구와 같으리? 그는 생전에 정직하여 불공평하고 바르지 않음이 없었고, 강개에 따르면 칭송이 많았다네. 죽어서도 正道에 돌아가 사당을 세워 모셨다네. ([正末唱] 【烏夜啼】 他古城中尋問他哥哥去, 將春秋左傳曾讀, 報曹公恩念施威武. 不戀金珠, 不羨嬌姝. 可是他封金棄印有誰如? 則爲他生前正直無私曲, 據慷慨多稱許, 死歸於正道, 立廟身居.)³¹⁾

[정말 창] 【미성】 당초 일생의 고생을 피할 것을 생각했지만, 오늘날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라오. 그 사나이는 몹시 충직하고 몹시 분노할 뿐만 아니라 담력과 지혜와 계략이 있다네. 그의 그 삼정도는 고금에 없는 것으로, 그 사이에 그 사신을 없애니 복이 온다네. [퇴장] ([正末唱] 【尾聲】 想當初一世辭辛苦, 今日無毒不丈夫. 那漢武忠直忒忿怒, 有膽量有智謀. 則他那三停刀今古皆無, 那其間掃滅了那邪神, 到大來是福. [下])³²⁾

위의 두 노래에서는 관우의 충직함과 지혜를 칭송하며 죽어서도 사당에 모셔졌다는 구절을 통해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치우와 관우의 싸움을 묘사한 장면으로, 관우의 신적인 형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치우] 너는 무슨 신이냐?

[관우] 나는 관장군이다. 너는 무슨 신이냐?

[치우] 나는 치우신이다. 현원과 원수지간이기에 이 염지를 마르게 했거늘, 너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병사를 이끌고 왔느냐?

[관우] 나는 송 천자의 명을 받들어 제멋대로인 사신을 잡으러 특별히 왔도다.

[치우] 나는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다. 삼계의 신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

31) 『孤本元明雜劇』第八冊, 「關雲長大破蚩尤」, 第2折

32) 「關雲長大破蚩尤」, 第2折

하거늘, 너의 그 붉은 얼굴이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토지의 신에게 무슨 신통한 법력이 있겠느냐. 나와 싸우면 내가 이길 것이다.

[관우] 제멋대로 구는 사신인 너도 들었을 터. 나는 비록 옥천산의 토지 신이나 평생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늘도 감동하여 오늘날 송 천자께서 칙서를 내려 승녕진군에 봉해졌다. 또한 옥제의 명령이 있어 오악사독의 병사를 이끌고 中軍에 앉아 소탕하러 특별히 왔으니, 일찌감치 항복하라.

[중략]

[관우] 치우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따라 꿈속의 범학사를 보러 가자.³³⁾

이 작품에서 신으로서의 관우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다. 요괴의 신과 인간의 신이 격돌하여 마침내 인간의 신이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관우의 신성함에 더욱 빠져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원주(院主)가 등장하여 관우의 신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上略] 관장군, 당신을 무안왕³⁴⁾으로 봉했는데 신비한 위력과 의용을 펼쳤고, 치우를 격파하여 다시금 승녕진군에 봉했습니다. 당신은 빨리 해주에 가서 묘를 세우고, 오늘 조정으로 돌아가 못 神將들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을 것을 아뢰십시오. 오늘 만 리의 천지가 깨끗이 안정되었습니다.

33) [蚩尤云] 來者何神? [正末云] 吾神關將是也. 爾乃何神? [蚩尤云] 吾神乃蚩尤神是也. 我與軒轅有讐, 以此枯乾了鹽池. 干你甚事, 你領兵來爲何? [正末云] 吾神奉宋天子之命. 特來擒擊你箇潑邪神. [蚩尤云] 我天也不怕, 地也不怕. 三界神祇不敢近傍, 量你箇紅臉漢? 則是箇土地之神, 有何神通法力, 敢與吾神鬪勝也. [正末云] 兀那潑邪神, 你聽者. 我雖是玉泉山土地, 因我平生精忠報國, 感動上天, 今宋天子勅封爲崇寧眞君. 更有玉帝勅令, 率領五嶽四瀆之兵, 吾坐中軍, 特來掃蕩, 及早歸降. [中略] [正末云] 鎖定蚩尤, 跟着我夢境中見范學士去來. 「關雲長大破蚩尤」, 楔子

34) 관우는 생전에 한 사람의 장수로, 죽은 후에 公·王·帝君·大帝로 진급하였다. 당나라 때 관우는 명장으로서 이미 '武廟'(당시 主神은 姜太公)에 진입해 함께 제사를 받았다. (중략) 명나라 말기에는 관우를 '무묘'의 主神으로 존송해 공자의 文廟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 顧承甫, 劉精誠, 김동휘 역, 『중국을 말한다』, 서울: 신원문화사, 2008, 135쪽.

([上略] 關將, 加你爲武安王神威義勇, 再封爲破蚩尤崇寧眞君. 你疾便去解
州立廟, 則今日回奏朝廷, 衆神將各還本位. 今日箇清寧了萬里乾坤.)³⁵⁾

원주는 관우가 치우를 격파한 공으로 그를 다시금 송녕진군에 봉하여 주고 범중엄에게 서둘러 그를 위한 묘를 세우길 재촉한다. 관우로 인해 천지가 평안해졌다는 대사로서 작가는 관객들에게 마지막 대단원을 선사해 주고 있다.

이상의 세 작품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관우는 인간에서 귀신으로, 귀신에서 신으로 변화하여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대에 창작된 관우극에서 관우의 형상은 하나의 모습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원대 관우극에서 보이는 독특한 현상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명청대 정형화된 신 관우의 형상이 완성되기 전의 중간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대의 관우숭배 현상은 잡극 관우극의 창작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송대 왕조의 지속적인 추대를 받으며 신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된 관우는 원대에 이르러 모든 계급과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이 되었다. 이로 인해 관우는 수많은 잡극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올려졌다.

원대의 관우극 속에서 관우는 한 명의 용맹한 인간에서 죽음을 원통해 하는 귀신으로, 나아가 재앙에서 구제해주는 신으로까지 등장하며 관객들에게 그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인간과 귀신, 신으로 변화·발전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형상으로 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관우의 모습은 원대 관우극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희곡 역사상 현존하는 모든 관우극에

35) 「關雲長大破蚩尤」, 第4折

전무후무한 현상으로, 명청대 정형화된 신 관우의 형상이 완성되기 전의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있다. 이처럼 중국연극의 발전과정 속에 민간신앙이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參考文獻

- 공상철 외,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서울: 다락원, 2001.
- 김탁, 『한국의 관제신앙』, 서울: 선학사, 2004.
- 顧承甫, 劉精誠, 김동휘 역, 『중국을 말한다』, 서울: 신원문화사, 2008.
- 구은아, 「중국의 관공신앙(關公信仰)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3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 김성규, 「『패장』에서 ‘武神’으로: 중국왕조에서 ‘관우 이미지’ 변천사 소고」, 『역사교육』 제135집, 역사교육연구회, 2015.
- 남덕현, 「關羽 문화현상 고찰」, 『CHINA연구』 제10집,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2011.
- 박신영, 「《三國演義》의 關羽형상화가 그 神格化에 끼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화승, 「關公信仰과 산삼상인의 발전」, 『동양사학연구』 제112집, 동양사학회, 2010.
- 차미경, 「청대 관우 숭배 현상과 경극 관우극의 발전」, 『중국문화연구』 제2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5.
- 陳壽, 『三國志』影印本, 上海: 商務印書館
『孤本元明雜劇』,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71.
- 羅貫中, 『三國演義』, 臺北: 聯經出版社, 1984.
- 隋樹森, 『元曲選外編』, 北京: 中華書局, 1959.
- 蔡東洲, 文廷海, 『關羽崇拜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1.
- 鄭土有, 『關公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1995.
- 杜鵑, 「雜劇關公戲文本的藝術形式研究」, 『中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期, 山西師範大學戲曲文物研究所, 中北大學經濟與管理學院, 2015.
- 李玲瓏, 「元代關羽崇拜與元雜劇中的關羽形象」, 『青海師範大學民族師範學院學報』第1期, 青海師範大學人文學院, 2006.
- 王丹, 「關羽圖像形態探析」, 『文藝爭鳴』第22期, 廣州大學美術與設計學院, 2010.

- 劉福燕, 「關公傳說視域下的關公信仰探究」,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4期, 忻州師範學院中文系, 2012.
- 朱偉明, 孫向鋒, 「關公戲與三國文化的傳播」, 『華中師範大學學報』第5期, 人文社會科學版, 2008.

Abstract

Yuan dynasty GuanYu worship and change of Guanyu shape

Cha, Mi-kyung · Yu, Yeon-mi

Zaju(雜劇) is a genre representing culture during Yuan dynasty(元代) as mainstream of Chinese traditional opera and positioned as important status in Chinese traditional opera history. In particular, in case of Zaju during Yuan dynasty, a work based on historical ancient story or character as topic drew unusual popularity and at its center, 'GuanYu(關羽)' who was a general during ShuHan(蜀漢) was appeared. GuanYu was one of historical characters who received respect from all walks of life as well as writers of such Zaju and Chinese former dynasty regarded him as a symbol of faithfulness, bravery and a target of worship and further deified him. Particularly during Song dynasty, he was worshipped by giving him fenghao(封號).

Even during Yuan dynasty followed by Song dynasty, GuanYu worshipping phenomenon was continued. Ruling class of Yuan dynasty who was originally Mongolian used GuanYu worshipping phenomenon as a means of reforming ruled class by combining it with religion (Buddhism). Ruled class also worshipped GuanYu under various private rituals and depicted him as diversified images by having him appear on Zaju stage. Zaju having GuanYu as main character is called as 'Guanyuju(關羽劇)' and character image of GuanYu appeared in this Guanyuju is not stereotyped and appeared in diversified images such as human being, ghost, god.

In this study, GuanYu worshipping phenomenon that is creation background of Guanyuju was intended to be observed by dividing it into Yuan dynasty. In addition, exploring change of Guanyu shape.

Key words : Yuan dynasty, GuanYu, Guanyuju, GuanYu worship, change of Guanyu shape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